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금융]

- YahooFinance: 관세와 연준 불확실성에 미 주식과 국채 하락
- Bloomberg: 미 금리 인하 베팅에 금값 3천5백불 상회

[무역 정책]

- CNNBusiness: 연방항소법원, 트럼프의 주요 관세 거부 판결...10월까지 관세 유효
- YahooFinance: 연방재무장관, "대법원의 관세 지지 판결 확신"
- WSJ: 9월의 트럼프의 주요한 정책 시험대

[글로벌 경제]

- WSJ: 한국, 8개월만에 인플레이 최저

[오일]

- WSJ: OPEC+, 석유 공급 과잉 우려에도 생산량 유지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맥도날드 CEO, "미국 브랜드 평판 줄었다"
- Bloomberg: 일론 머스크, "테슬라 가치의 80%는 옵티머스 로봇에서 창출할 것"
- WSJ: Kraft Heinz, 두 회사로 분할한다
- CNBC: '월마트의 최신 AI 혁신은 대형 소매업체의 변화를 의미'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금융]

YahooFinance: Dow, S&P 500, Nasdaq sink as Treasury yields jump amid tariff, Fed uncertainty

관세와 연준 불확실성에 미 주식과 국채 하락

- 오늘 화요일 미 주요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 역사적으로 성적표가 가장 낮은 9월이 시작되고 있다. 월가는 이번주에 발표되는 월간 일자리 보고서가 금리 인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.
- 국채의 경우 30년물은 금리가 거의 4.96%로 지난 7월 이래 처음으로 5%를 바라보고 있고 10년물 금리는 거의 4.3%에 근접하고 있다.
- 나스닥은 1%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, S&P 500은 1%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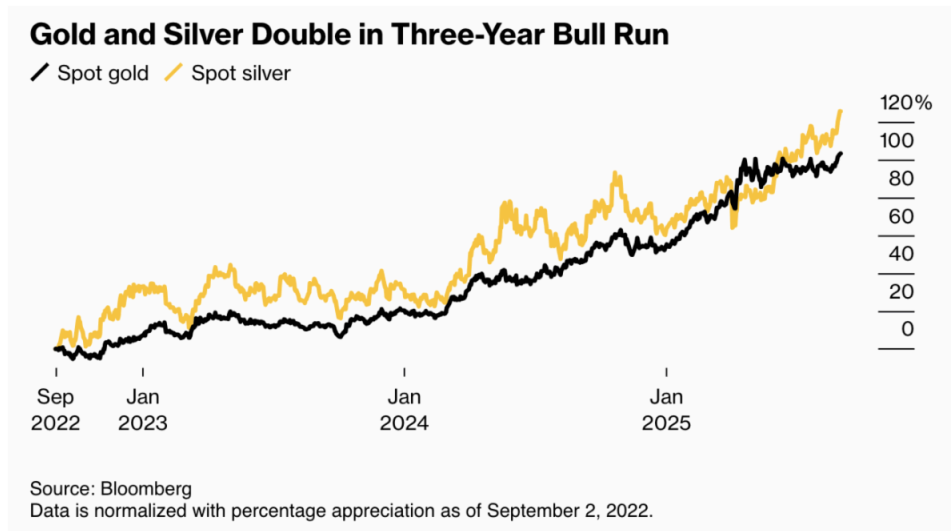


YahooFinance 기사

Bloomberg: Gold Touches Record High Above \$3,500 on US Rate-Cut Bets

미 금리 인하 베팅에 금값 3천5백불 상회

- 미 금리 하락 전망과 연준의 향후 구조에 대한 우려가 지난 수년간 금가격 랠리 추세를 밀면서 금가격이 최고치를 잠시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- 금값은 올해 30% 올라 수익률이 높은 주요 상품중 하나로 연준이 이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.
- 한편 투자자들은 8월 현재 7개월간 연속해서 은(Silver) 기반은 상장지수펀드(ETF)를 구매하고 있어 런던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가능한 비축량이 줄어들어 타이트한 시장에서 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



Bloomberg 기사

[무역 정책]**CNNBusiness: Appeals court strikes down many Trump tariffs, but delays enforcement until October****연방항소법원, 트럼프의 주요 관세 거부 판결... 10월까지 관세 유효**

-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금요일 트럼프의 주요 관세 조치들에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. 트럼프가 불법적으로 비상 권한을 관세 부과에 이용했다는 것이다.
- 연방순회법원은 금년 초에 트럼프가 사용한 관세들에 '국제긴급경제권한'(IEEPA)을 이용할 수 없다며 트럼프 관세에 대한 하급 법원의 위헌명령에 손을 들어주었다.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밝혔다. 이번 판결은 상호 관세 등에 해당되며 철강, 자동차, 알루미늄 등 232조항에 따른 품목별 관세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.
- 그러나 이번 판결은 효력은 10월까지 연기됐는데 트럼프는 이 기간동안 대법원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.

CNNBusiness 기사

YahooFinance: Trump tariffs live updates: Bessent sees Supreme Court upholding tariffs as Trump blasts India**연방재무장관, "대법원의 관세 지지 판결 확신"**

- 연방재무장관은 어제 월요일 대법원이 '국제긴급경제권한'(IEEPA)에 기반한 1977년 관세법 사용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. 그는 또한 이것이 거부될 경우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.
- 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의 미 무역 적자와 미국으로의 펜타닐 밀수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적 의견서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.
- 한편 트럼프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"모든 관세는 유전히 유효하다"면서 항소 법원의 판결은 당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지지 판결로 관세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.

YahooFinance 기사

WSJ: Trump's September Is Filled With Tough Deadlines**9월의 트럼프의 주요한 정책 시험대**

- 9월 들어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연방 정부 섯다운을 막기 위해 의회와 협상 데드라인을 다가오는 기간이다.
- 트럼프는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 협정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미국의 보복 가능성이 결정되는 데드라인을 이들 국가들에 통보했었다.
- 그는 그의 주요 경제 안건과 대선 약속의 핵심인 관세 적법성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.

WSJ 기사

[글로벌 경제]**WSJ: South Korea's Inflation Hits Nine-Month Low**
한국, 8개월만에 인플레이 최저

- 8월 한국의 인플레이가 작년 비교해 연율로 1.7%를 기록했다. 지난 11월 이래 가장 낮았다. 한국은행의 목표는 2% 였다.
- 8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지난달 비교해 0.1% 떨어져 예상치를 빗나갔다. 가솔린 가격과 통신비는 낮아졌다.
- 한국은행은 올해 8월 금리를 동결했으나 지난해 10월 이래 기준 금리를 0.1% 떨어뜨렸다.

WSJ 기사

[오일]**WSJ: OPEC+ Set to Hold Output Steady as Oil Glut Anxiety Looms**
OPEC+, 석유 공급 과잉 우려에도 생산량 유지

- 석유 시장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대비하는 가운데, OPEC+의 주요 회원국들은 일요일에 회동하여 생산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.
- 이들은 하루 22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었으나 이를 해제하고 공급 계획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,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이 방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HSBC는 브렌트유 가격이 2026년까지 배럴당 65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, 이미 예상되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OPEC+이 추가로 증산할 경우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.
- 한편, DNB 애널리스트들은 “2026년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”며 밝은 장기적인 전망을 내보였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**Bloomberg: McDonald's CEO Says American Brands' Reputations Have 'Dimmed'**
맥도날드 CEO, “미국 브랜드 평판 줄었다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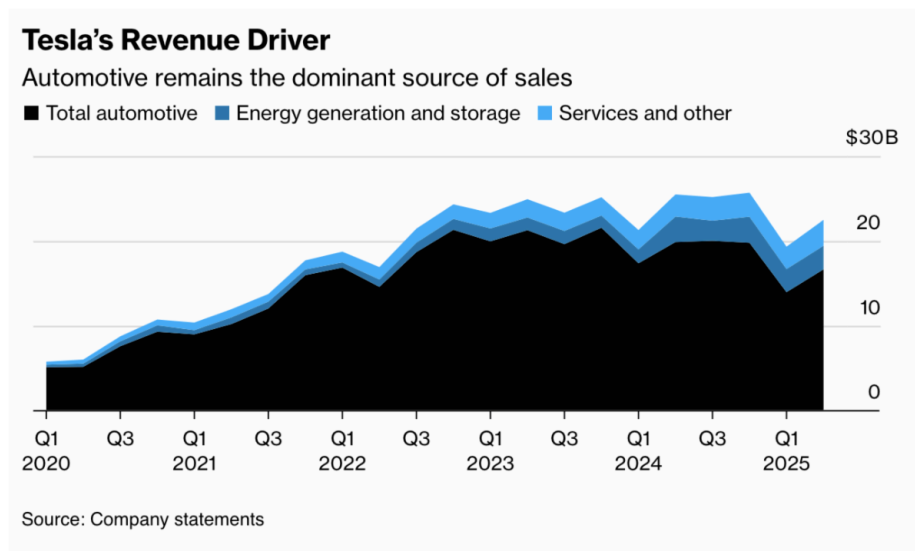
- 맥도날드의 CEO Chris Kempczinski는 미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미국 브랜드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.
- 그러나 Kempczinski는 “맥도날드가 전통적으로 상징적인 미국 브랜드로 여겨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해외에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맥도날드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다”고 전했다.
- 그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“맥도날드는 지역 사회 내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할 것”이라 전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Tesla Will Derive 80% of Its Value From Optimus Robot, Musk Says

일론 머스크, “테슬라 가치의 80%는 옵티머스 로봇에서 창출할 것”

- 일론 머스크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인간형 로봇을 선호하면서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.
- 그는 월요일, 회사 가치의 80%를 옵티머스(Optimus)에서 창출할 것이라 전했는데, 이는 4년 전 발표한 로봇 사업의 일환이다.
-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에서 “우리는 AI를 현실세계에 접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”고 전했으나, 옵티머스를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상황이다.



Bloomberg 기사

WSJ: Kraft Heinz Is Splitting Into Two Companies

Kraft Heinz, 두 회사로 분할한다

- Kraft Heinz가 2015년 대규모 합병을 정리하며 두 개의 별도 회사로 분할하게 된다.
- 두 개 회사중 한개는 북미 그로서리 필수품에 집중하고 다른 회사는 글로벌 차원서 ‘맛의 향상(taste elevation)’에 집중하게 된다
-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맥앤치즈, 마요네즈 등 핵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. 또한, 올해 운영 비용이 5%에서 7% 사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.
- Kraft Heinz의 책임자 Miguel Patricio는 이번 분할을 통해 “각 브랜드의 잠재력을 끌어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원을 할당하고자 한다”고 전했다.
- 식품 업계는 그동안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해왔는데, Kraft Heinz는 이러한 전략을 뒤바꾸고 더욱 집중적인 사업을 만드려는 것이다.

WSJ 기사

CNBC: Walmart's latest AI innovations represent a shift for big retail '월마트의 최신 AI 혁신은 대형 소매업체의 변화를 의미'

- 월마트가 최근 Retail Rewired 행사에서 네 가지 슈퍼 에이전트 출시를 발표했다. 이에는 판매자 및 공급업체를 위한 Marty, 소비자를 위한 Sparky, 직원들을 위한 Associate Agent, 그리고 개발자들을 위한 Developer Agent가 포함된다.
- 이는 관세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압박 속에서 매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, 월마트뿐만 아니라 많은 소매업체들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.
- 월마트는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향상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. 이는 월마트의 매장과 모든 상품을 가상으로 복제하는 AI 기반 기술인데,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 2주 전부터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.
- 월마트는 작년에 이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비상 경보를 30% 줄이고, 냉장 유지 관리 비용도 19% 절감했다고 전했다.

CNBC 기사

[보고서]

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...금·은 가격 사상 최고치 금 현물도 온스당 3천500달러 넘겨...은값은 온스당 40달러 돌파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 '연준 흔들기' 지속...안전자산 선호 심리 자극

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가 이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2일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3천5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.

파이낸셜타임스(FT)는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이 0.9% 상승하며 온스당 3천 508.70달러까지 상승했다고 보도했다.

금 현물 가격은 이후 3천497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록했던 종전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